

오세훈·유승민 불출마에 요동치는 국힘 경선 구도

유 “기득권 집착에 분노”... 오 “출마 후보 도와 정권 재창출”
불출마 정치인 세력 누가 흡수하나에 따라 초반 판세 출렁
김문수·나경원 연대 움직임... 이정현 전 대표 출마 철회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10여명에 달하고 있어 불출마 정치인의 세력을 누가 흡수하나 여부에 따라 초반 판세도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아무런 절박함이 없다.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는다”면서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 보수의 영토를 중심으로 넓혀가려는 커닝 점점 조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어디에 있는 제가 꿈꾸는 진정한 보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보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 시장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

의 비전과 함께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해 도와서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불출마로 내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선에서 그의 지지율을 어떤 후보가 흡수하게 될지 주목된다. 당내 주자들 사이에서는 “오 시장의 소명 의식에 적극 동의”(김문수) “다시 성장이다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화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홍준표), “오 시장님 뭉개지 더 열심히 뛰겠다”(한동훈) 등 오 시장을 향한 ‘러브콜’이 이어졌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이날 “국가대표가 될 꿈을 접고, 대신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그분의 캐디백을 기꺼이 메겠다”며 대선 출마를 철회했다. 김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연대 행보”에 나서는 듯한 모습이다. 김 전 장관과 나 의원은 전날 보수 청년단체가 주최한 ‘연금개혁 규탄집회’에 함께 참석한 데 이어 이날은 나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앞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당내에서는 김 전 장관과 나 의원 등 지지층이 겹치는 ‘탄핵 반대파’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연대 내지 단일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선을 시작하며) 나 의원과 같이 대화하고, 다른 후보 누구라도 또 원하시면 제가 만나 뵙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정책적 협력도 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결국 국민의힘 후보는 함께하는 것”이라며 “오늘도 학생들의 고민을 듣는 것 자체가 청년에 대한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어느 후보와도 그런 행보를 같이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전포 카페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한 전 대표는 공항 부지 방문에서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의 염원이다.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2029년에 예정대로 신공항이 열릴 수 있도록 정치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울산과 부산을 방문 중인 한 전 대표는 전날 울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 조선업 현장을 방문했다. 한 전 대표의 일정에는 조경태 정성국 정연옥 등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동행하고 있다.

한편, 당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오는 1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낼 계획이었지만, 지도부의 자체 요청 9으로 취소됐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행이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은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 자체로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한 대행 출마론과 관련한 질문에 “본인은 가만히 계시는 데 정치권에서 이래저래라하면서 부산스럽게 하는 것,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문금주·서왕진 “尹 정권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중단하라”

“계엄 이후 100여명 넘게 임명”
윤석열 전 정권이 12·3 불법계엄 이후에도 100여명이 넘는 인사를 부처·기관에 임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정당혁신)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질타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이후 이미 임명했거나 공모 중인 알박기 인사가 무려 20여 개 부

처·기관에 걸쳐 100여명을 넘어섰다. 문 의원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된 윤석열 정권이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은 내란세력들이 향후 다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내란 잔재 씨앗을 심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장 선임은 소위 내란 씨앗을 심기 위한 알박기 인사로 사회적 논란과 물의를 일으킬 뿐이다”며 “탄핵된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한 몸인 여러 인사들의 공공기관장 선임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비례·광주시장 위원장) 의원도 앞서 지난 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무더기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현재 산업부 소관 기관 중 기관장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기관은 총 9개며, 이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공모 절차가 시작된 기관은 6개”며 “산업부는 그동안 기관장 공석과 직무대행 체계로 길게는 1년 넘게 인사를 방치하고 있다”가 탄핵 국면에서 갑자기 인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광주, 대선서 대한민국 바꾸는 주역되자

‘포럼 만민공동회’ 토론회
광주의 미래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조기대선에서 광주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민대토론회가 개최됐다.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광주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포럼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서구 을) 광주시당위원장과 민형배(광산 을)·안도걸(동남 을)·조인철(서구 갑)·정진욱(동남 갑)·박근택(광산 갑)·전진숙(북구 을)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4개 지자체장(동·서·남·광산)도 자리했다. 토론회에서는 12·3계엄을 이긴 ‘광주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당위성을 확인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BIO)·문화(CULTURE)·자율차(Drive in future·MOBILE)·에너지(ENERGY) 등 이른바 ‘광주ABCDE’로 대표되는 광주의 미래산업과 성장전략을 모색했다. 의원들은 이번 조기대선에서 광주가 핵심역할

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바꾸는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주제로 토론했다. 만민공동회를 제안한 정진숙 의원은 “1898년 만민공동회가 자주독립과 국민주권, 정치개혁을 외쳤고 그 당시 서울시민 17만중 1만~3만명이 모이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포럼 만민공동회’가 윤석열 내란을 이겨낸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제4기 민주정부를 활짝 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의 미래비전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광주는 AI, 에너지, 문화, 바이오, 모빌리티 등 다양한 혁신 역량을 보유한 도시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결집시킨다면 광주는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광주를 글로벌 AI 에너지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초거대 AI 집적클러스터 조성, 분산에너지 기반 전력망 구축, 태양광·풍력 신재생 에너지 벨트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힘 대선후보 경선 ‘예능적 요소’ 가미한다

‘밸런스 게임’ 등 각종 이벤트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에서 ‘예능적 요소’를 가미한다. 당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최대 세 차례 이뤄질 이번 경선의 일정과 콘셉트를 정했다.

현재로선 10명이 넘는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 가운데 최종 후보를 좁혀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관심을 끌겠다는 구상이다. 14~15일 후보등록 이후 서류심사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첫 이벤트는 17일 1차 미디어데이이다. 이날 후보들은 ‘의자 뺑’ 놀이 방식으로 토

론회 조 편성을 한다. 각 후보는 MBTI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밸런스 게임’에도 참여한다. 이어 상위 4명만 걸러내는 1차 컷오프(이달 22일)를 통과한 후보 4명은 24~25일 ‘일대일 맞수 토론’을 한다. KBS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자유선언 주먹이 운다’의 형식을 차용, 각 후보가 원하는 상대 1명에게 ‘너, 나와’라고 불러내 양자 토론하는 형식이다. 토론 과정에 ‘스피드 퀴즈’와 ‘AI가 선정한 최악의 악플’ 등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